

몸으로 쓰는 글....

책상은 어 울려 배워나가는 저구마을 모든 곳....

요 며칠 중앙아시아에서 날아온 모래바람이 거제도 남쪽바다에서 머뭇거립니다. 오른쪽 창 너머 보이는 섬들이 먼 산꼭대기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바다 빛은 여전히 짙고 푸릅니다. 여기서 더 날아가면 태평양. 오랜 여정에 지친 모래바람이 이 근처에서 쉴 자리를 찾나봅니다.

그렇잖아도 동백꽃 우두두 떨어지는 소리에 마음 어수선했었습니다. 동백꽃이 지면서 창문 옆 텃밭에 유채, 청경채, 배추 노란꽃이 다투어 피어났습니다. 꽃 핀 자리에 나비와 벌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당가 대나무 숲에 사는 참새 몇이 창턱으로 날아와 소란을 떨니다.

마을 쪽에 붙어 있는 마당과 마당을 둘러싼 텃밭으로 열린 왼쪽 창과 바다로 열린 오른쪽 창이 만들어낸 모퉁이에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이 많았던 누군가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만들었을 원목 책상입니다. 상판 두께만 7센티미터 정도. 조롱박을 반 잘라놓은 것처럼 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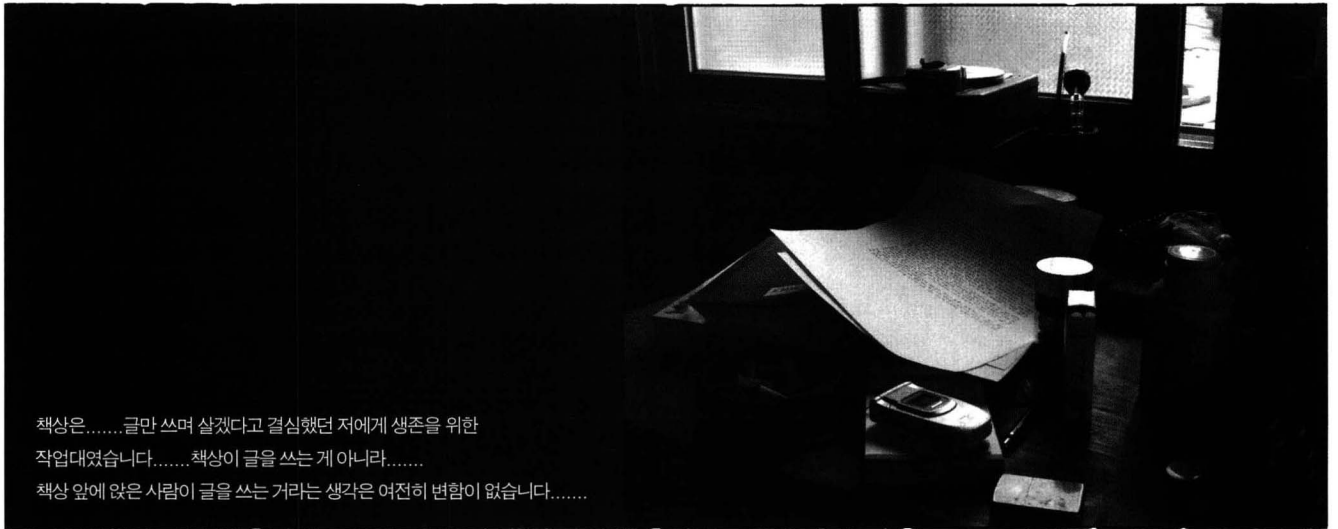
진 몸매를 가졌지요. 그러나 질감은 거칠고 투박한 나무 그대로입니다. 아마도 이 책상의 옛 주인은 호사가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서울살이를 접고 거제도도로 내려올 무렵만 해도 저에게는 변변한 책상 하나 없었습니다. 다 버리고 이민가는 심정으로 떠난 때였으니 글 쓰는 환경을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땃거리가 문제였고, 시골살이에 적응하는 게 문제였지요. 그렇게 두 해쯤 지난 후, 민박하는 데 쓸 가구를 장만하러 재활용센터에 갔다가 이 책상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끌렸지만, 형편상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지요.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집사람이 먼저 값을 묻더군요. 7만 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마음을 접어야 했지요. 살 걸 다 사고도 집사람은 재활용센터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집사람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글 쓰세요.” 거제도에 와서도 글을 쓰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책상 탕은 아니었습니다. 제 삶보다 식구의 온전한 삶이 먼저였기 때문에 글 욕심을 부릴 틈이 없었습니다. 또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서울에서 맛별이하느라 놀이방에 맡겨둔 어린 자식들과 부대끼는 게 더 중요했고, 한집에 살면서도 별 말이 없었던 집사람과도 제비처럼 수선을 떨며 지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간 제가 좋아하는 일, 글만 쓰며 사느라 간격을 두고 살았던 식구와 행복하게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지요.

문학을 하는 사람은 고독한 법이라는, 문학을 하는 사람은 식구들을 돌보지 않는 게 멋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 살 때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였지요. 등단하고 10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그 말이 배부른 자들의 안주거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 식구 하나 먹여 살릴 수 없는 사람이 쓴 글은





책상은.....글만 쓰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저에게 생존을 위한
작업대였습니다.....책상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이 글을 쓰는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제 정신으로 쓴 글이 아니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긴 식구 없이도 명작을 남기는 천재적인 작가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재도 못 되고 명작을 쓸 만한 재목도 못 되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제게 찾아와 글과 식구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식구를 고를 겁니다.

너무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선택에 대해 돌을 던질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제 식구만 옆에 끼고 도는 이기주의자로 보이기도 하겠지요. 모두 제 능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현실의 토대가 없이, 현실에 대한 겸손이 없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 식구가 외롭고 배가 고프는데도 남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작가들 틈에 살던 시절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술이 덜 깬 정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늘 비현실적이었고, 그 비현실적인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비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행각을 벌이면서 모두 깨달은 사람인 양 글을 날려 쓰던 그 시절은 이제 잊었습니다.

그 책상을 마당에 부러놓고 흉하게 칠이 벗겨진 상판을 사포로 밀던 날, 봄별이 참 따가웠습니다.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유치원에서 돌아온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서로 사포질을 하겠다고 깡충거렸습니다. 사포를 쥐어주고 마당 옆 텃밭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키재기를 하며 올라오는 새싹과 자식들을 번갈아 보며 웃었지요. 자식들은 그것이 책상인지 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포질 몇 번 하다 그만두고 그 위로 올라가 텃밭거나 뛰어내렸지요. 며칠 동안 책상은 그렇게 마당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포질을 멈춘 동안 책상은 영락없이 아이들 장난감이 되었고요.

2평 남짓한 제 방에 책상을 들여놓던 날, 저와 집사람은 마음이 들떴습니다. 이제는 시골에서도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탈리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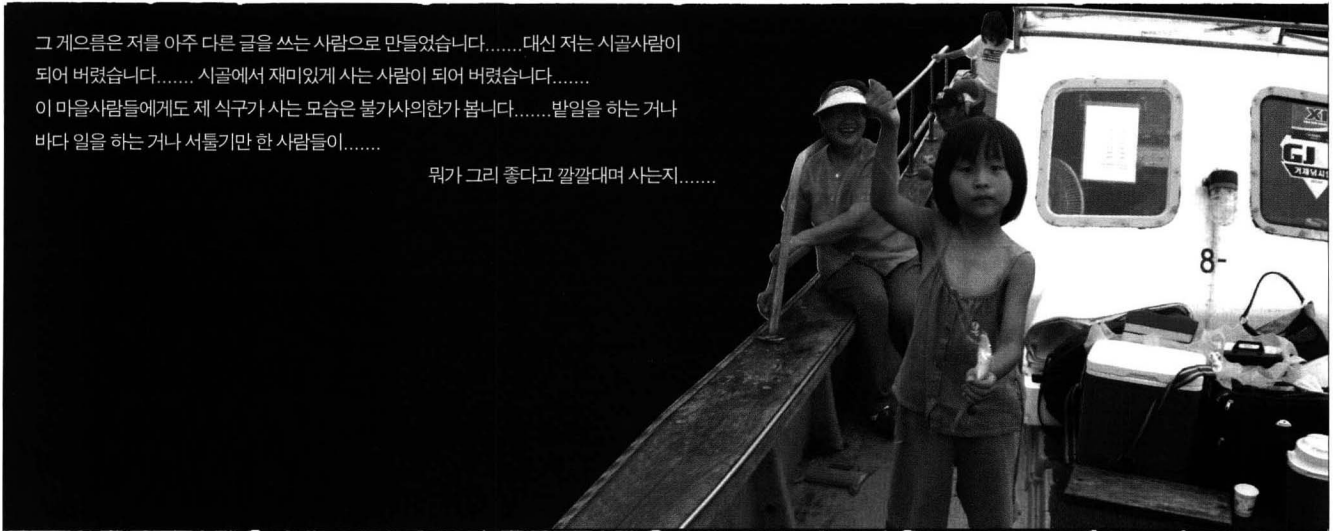
요. 식구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밭이나 산이나 바다로 나가 놀 만큼 자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많이 쓰던 몇 년 전에는 낮에 자고 밤을 새워 글을 썼습니다.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졌지요. 그리고 한두 달 폭염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여유를 가지고 글을 쓴 기억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전업작가로만 살던 시절, 노동자보다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글만 썼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의 작가들에 비해 턱없이 많은 책을 출간할 수



그 게으름은 저를 아주 다른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대신 저는 시골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골에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마을사람들에게도 제 식구가 사는 모습은 불가사의한가 봅니다.....밭일을 하는 거나 바다 일을 하는 거나 서툴기만 한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깔깔대며 사는지.....



있었지요. 그러나 식구들 겨우 먹여 살리는 정도밖에는 능력이 안 되더군요.

책상은, 글만 쓰며 살겠다고 결심했던 저에게 생존을 위한 작업대였습니다. 그러나 책상 자체에 대해 관심을 둔 적은 없었습니다. 10년 전, 결혼을 할 때 장만한 빼격거리는 조립식 책상에도 만족했습니다. 책상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앉은 사람이 글을 쓰는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늘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시간에 쫓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집사람이 사 준, 육중한 책상은 당신 뜻대로 글을 쓰며 살라는 무언의 격려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한참을 그 책상 앞에 앉아 글다운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집사람이 밭에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앉고 싶고, 들로 나가면 그 뒤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조개를 캐러 가면 강아지와 함께 뒤를 쫓아갔지요. 자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또

집사람 손을 붙잡고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녔습니다. 식구들이 잠들고 나서야 잠깐 책상 앞에 앉아 사는 이야기나 또각또각 두드리다가 길게 하품을 내지르고는 잠 자리에 들었습니다.

지난 봄 매일 글을 써서 신문에 연재하는 일이 생길 때까지 저는 아주 게으르게 글을 썼지요. 게으른 동안, 예전에 글 쓰는 모양새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 글을 예전부터 유심히 보아온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그 게으름은 저를 아주 다른 글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신 저는 시골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니군요. 시골에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마을사람들에게도 제 식구가 사는 모습은 불가사의한가 봅니다. 밭일을 하는 거나 바다 일을 하는 거나 서툴기만 한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다고 깔깔대며 사는지, 여간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보니 저의 작업대는 책상이 아니었습니다. 식구들과 어울려 배워나가

는 시골의, 자연의 모든 곳이 작업대였군요. 거기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책상 앞에 앉아 글로 많이 옮기진 못했지만 대신 몸으로 많은 글을 썼으니 글 쓰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올 봄,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 할 글감이 하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구상해 온 이야기인데 그간 쓰지 못해 몸이 근질거리 미칠 지경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줄거리를 몇 번씩 고쳐가며 이야기가 제대로 익을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루었는데 더 이상은 못 미루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본격적으로 쓰려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한쪽 창으로는 텃밭이 부르고, 다른 창으로는 바다가 불러서 머뭇거렸습니다. 글을 쓰더라도 예전처럼 글에 목매달지 말고 여느 때처럼 밭일도 하고 바다에도 나가고 산도 오르면서 쓰자, 결심하고 나니 마음이 잔잔해졌습니다. 허 참. 살다보니 이런 날도 오는군요. **한문** 시인·소설가 | 이진우



이 글을 쓴 이진우는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고 1989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다.

— 시집 〈슬픈 바퀴벌레 일가〉 〈내 마음의 오후〉와 장편소설 〈오감도〉 〈적들의 사회〉 〈메멘토모리〉,

산문집 〈저구마을 아침편지〉 등을 냈다.

— 시 전문 사이트 '시인학교www.poetschool.net'를 운영하고 있고 4년 전 가족과 함께 도시를 떠나 경남 거제도 저구마을에서 살고 있다.